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SF 연준 총재 "올해 2차례 금리 인하...관세 물가 효과 줄어들 듯"

[무역전쟁]

- WSJ: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산에 35% 관세 부과"
- Bloomberg: 베트남, 계속 미국과 관세 추가 인하 노력
- Reuters: 미국, 한국에 조선업 관련 중국에 대응 노력 원해
- Bloomberg: 트럼프 관세의 제조 활성화 예상 불구, 관세 리스크 여파 있어
- WSJ: 트럼프, 관세를 미국의 파워 수단으로 이용한다

[전기차]

- YahooFinance: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받으려면 서둘러라

[오일]

- WSJ: IEA, "세계 석유 공급량 예상보다 빨라" 전망

[주택]

- Bloomberg: 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5주 연속 하락 후 상승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골드만삭스, 월가에서 첫 자동 코더 시범 운영
- WSJ: Levi Strauss, 소비자 판매 회복으로 전망 상향 조정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s Daly Sees Two Cuts in 2025, Says Tariffs' Price Hit May Be Muted

SF 연준 총재 "올해 2차례 금리 인하.. 관세 물가 효과 줄어들 듯"

-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는 올해 연준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그는 회사들이 가격 부담을 위해 관계사들과 논의 중이며 가격 인상 상당 부분을 최종 소비자에 전달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 한편, 세인트 루이스 연준 총재인 Alberto Musalem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 효과가 일회성인지 보다 영구적인지는 곧 알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WSJ: Trump Threatens 35% Tariff on Some Canadian Goods

트럼프, “8월 1일부터 캐나다산에 35% 관세 부과”

- 트럼프는 어제 목요일 저녁 8월 1일부터 캐나다 수입품에 31%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 협정(USMCA) 적용 제품들은 예외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을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외 상황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캐나다 정부는 이달 21일까지 관세 협상 마감일 전에 35% 관세 부과 서한을 받은 것이다. 이번 통보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Mark Carney 총리는 관세 유예 마감일까지 계속 협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Vietnam Surprised by Trump Tariff Decision, Seeks Lower Rate**베트남, 계속 미국과 관세 추가 인하 노력**

- 베트남은 트럼프로부터 20%의 관세 부과 방침을 전달받고 당혹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는 당초 10%~15%의 관세 부과를 위해 노력했었다. 향후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되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의 새로운 20% 관세는 기본 관세 10%를 대체하고 기존의 존재하는 다른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Bloomberg 기사

Reuters: US wants South Korea to join efforts to counter China in shipbuilding**미국, 한국에 조선업 관련 중국에 대응 노력 원해**

- 한국의 고위 무역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 향후 공동 노력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조선업 진흥 노력에 대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장성길 무역통상국장은 한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 시장 점유율 상승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과 전략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은 그러나 동시에 한국에 자동차와 철강 관세 폐지나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Reuters 기사

Bloomberg: Trump's Tax Law Expected to Spur US Factory Investment But Tariffs Pose Risks**트럼프 관세의 제조 활성화 예상 불구, 관세 리스크 여파 있어**

- 최근 통과된 트럼프의 세제 개혁법의 미 제조업체 비즈니스 세금 조항에는 장비와 공장 투자 시 첫째 세금을 100% 공제하는 ‘보너스 감가상각’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기업에게는 고무적이라는 것.

- 이 같은 세금 혜택으로 인해 관련 회사들의 자본 투자가 용이해진다.
- 그러나 트럼프 관세로 생산 비용 상승 리스크가 있어 자본 투자 증가세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rump Doubles Down on Using Tariffs as Tool of American Power **트럼프, 관세를 미국의 파워 수단으로 이용한다**

- 트럼프는 브라질 정부가 전 대통령 Jair Bolsonaro의 재판을 근거로 브라질에 50%의 관세 부과를 통고했다. 그는 트럼프와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이다.
- 트럼프는 수십 년 간의 관행을 뛰어넘어 관세를 무역 대응 조치가 아닌 정치적인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어 향후에 법적인 경제적인 반발의 리스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전기차]

YahooFinance: Tesla, EV buyers need to act now if they want \$7,500 tax credit

전기차 구매 세제 혜택 받으려면 서둘러라

- 테슬라 등 전기차 구입에 관심 있는 소비자는 연방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 올해 9월 30일까지만 새 전기차 7천5백 불, 중고 전기차는 4천 불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세제 개혁법 통과로 혜택이 조기에 종결된다.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 이번 세제 공제가 사라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 Y, 혼다 Prologue, 기아 EV9 등이다.
-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 된 모델인 테슬라 모델 Y는 9월말 이후부터 주와 지방 정부 인센티브를 받기 전에는 가격이 3만7천5백 불에서 4만5천 불로 상승한다.

YahooFinance 기사

[오일]

WSJ: Global Oil Supply to Rise Faster Than Expected, IEA Says **IEA, “세계 석유 공급량 예상보다 빨라” 전망**

- IEA에 따르면 올해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보다 세 배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 증가로 공급량은 하루 95만 배럴이 급증했다. 또한, 이스라엘-이란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우려가 커지자, 걸프 지역의 생산 업체들이 수출을 늘렸다.

- IEA는 올해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72만 4천 배럴에서 70만 4천 배럴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무역 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
- IEA는 내년 석유 수요가 72만 2천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OPEC이 전망한 하루 약 130만 배럴 증가 예상치보다 훨씬 낮다.

WSJ 기사

[주택]**Bloomberg: US Mortgage Rates Climb After Five Straight Weeks of Declines****미 주택담보대출 금리, 5주 연속 하락 후 상승**

-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30년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주 6.67%에서 6.72%로 상승했다.
- 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서 주택 구매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과 경제 불확실성이 부담을 주고 있어 주택 거래는 한동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7월 6일까지 4주간 주택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이는 2월 초 이후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그러나, 주택 투어와 온라인 검색은 연초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Goldman Sachs is piloting its first autonomous coder in major AI milestone for Wall Street****골드만삭스, 월가에서 첫 자동 코더 시범 운영**

- 골드만삭스가 AI 스타트업 회사 Cognition이 개발한 자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Devin'을 테스트 중이다. Devin은 곧 골드만삭스의 12,000명의 인간 개발자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Devin은 세계 최초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최소한의 개입으로 많은 단계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 작년, JP모건을 포함한 주요 월가 기업들은 OpenAI 모델 기반 AI 인지 도우미를 출시했고, 이제는 에이전트형 AI가 등장했다. 전체 앱을 구축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실행하는 Devin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낸다.
- 마이크로소프트 모회사 알파벳의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AI가 이미 전체 코드의 약 30%를 생성하고, 지난달에는 자사 업무의 최대 50%를 처리했다고 알려졌다.
- 이번 시범 운영은 기업 세계에서 AI가 얼마나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최신 사례이다.

CNBC 기사

WSJ: Levi Strauss Raises Fiscal-Year Outlook on Resilient Direct- to-Consumer Sales

Levi Strauss, 소비자 판매 회복으로 전망 상향 조정

- 리바이스가 소비자 판매 회복에 힘입어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연간 1~2%의 매출 감소를 예측했지만, 이제는 1~2%의 성장을 예상한다.
- 리바이스 CFO Harmit Singh은 “소비자는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하며, 리바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 강조했다.
- 리바이스는 직접 소비자 대상(DTC) 사업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리바이스의 직접 소비자 판매가 11% 증가해 현재 총수익의 50%를 차지하며 실적을 개선하고 있다.
-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리바이스는 매장을 확대하고, 청바지 외 다양한 의류 카테고리를 생산하며, 마케팅을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실적 개선 발표에 리바이스의 주가는 목요일 거래에서 8% 상승해 21.23달러를 기록했고, 올해 들어 14%의 상승세를 보였다.

WSJ 기사

[보고서]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에도 낙관론...S&P 500 최고치

나스닥도 최고치 경신...브라질 '폭탄관세' 예고에도 시장 면역
엔비디아 시총 4조달러 돌파 마감...델타항공, 실적 전망 상향에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율 관세 위협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2.34포인트(0.43%) 오른 44,650.6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20포인트(0.27%) 오른 6,280.4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9.33포인트(0.09%) 오른 20,630.67에 각각 마감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